

작은 꽃

주요 행사 일정:

- 2 월 5 일
Soup Kitchen 봉사
- 2 월 12 일 성서모임
- 2 월 26 일 월례회

다음쪽:

성경모임

12 월 월례회

도미니코 신부님 방문

이달의 작은 사람



재속 프란치스코 성 디에고 형제회 소식지

가고 오는 해와 나의 감사

권 영순 로사, SF0

한 해를 보내며, 또 한 해를 맞으며 가장 마음에 남는 말이 감사이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먼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맺을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성격이 급한 나는 늘 바쁘고 그래서 짜증스럽기 일쑤이다. 언제나 사랑해야 할 가족을 먼저 상처 입히곤 한다. 한 템포만 숨을 깊게 들이내쉬고 나서 보면 그러지 않을 것을 늘 저지르고 후회하고의 연속이다. 그래서 고백성사도 참 힘들다. 지금 가서 고백하고 다시 똑같은 잘못을 하는데 과연 고백성사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의문이 가곤 한다. 자주하지도 않지만 어떤 땐 이렇게 긴가 민가하며 임하는 고백 성사가 오히려 짐스럽기까지 하다. 언제쯤이면 이런 비성숙한 신앙에서 벗어나 발돋움을 해보나 한심스럽다가도, 그나마라도 성사를 볼 수 있고 이런 고민도 할 수 있는 신앙이 있음에 새삼 감사한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너그러우신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지난 여름 한국과 중부에서 가족들이 다녀가셨다. 열일곱이라는 작지 않은 식구가 그야말로 엉덩이 부딪쳐가면서 지낸 시간이었다. 새벽에 눈 떠서부터 자정에 눈 감을 때까지 장보랴, 식사해 대랴, 청소하랴, 여행하랴, 그리고 짬짬이 얘기나누랴 진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시간이었다. 비록 목욕탕을 쓰려면 줄을 서야 했지만, 서로 걱정해주고 미안해하고 살피주는 살가운 시간들이었다. 먼길을 마다않고 와주는 가족이 있고, 작지만 먹이고 재울수 있는 집이 있고, 서로 웃으면서 안을 수 있는 가슴이 있고,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달포 전부터 일자리에 변동이 있어 출퇴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었다. 십여분의 거리가 교통 체증으로 보통

서너배는 더 소요된다. 새삼 그 동안 동네 안 4 mile 반경 내에 모든 생활권이 있어왔음이 어찌 그리 감사하던지. 시작하기 전 다른 동료들의 한결 같은 염려 때문인지 처음엔 어색한게 많았지만, 지금은 매일 조금씩 평안해지고 오히려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돌이켜 보면 나는 그동안 일터의 운이 늘 좋은 편이었다. 대학 들어갈 때,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을 때, 미국에 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늘상 큰 걱정 없이 넘어 넘어 왔음은 참 쉽지 않은 운 같다. 늘 부족한 내 능력에 비하면 큰 손의 보살핌이 한량 없으심에 감읍할 따름이다.

또 하나 늘 가슴이 따듯함은 많은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과 친구가 있음이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우리 형제회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 정말 보배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이 곳을 떠난다면 가장 아쉬운게 너일꺼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 나는 정말 복도 많다.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짙 감사한 것은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이라 하겠다. 앞뜰의 잡초를 뽑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다. 멀리서 보면 푸른 잔디밭 같은데, 앉아서 하나씩 고르다 보면 잔디는 누렇게 시들시들, 하나 뽑으면 그 옆에, 그 밑에, 또 그 뒤에, 온통 잡풀 투성이다. 차라리 싹 같아엎고 새 잔디를 심으면 훨씬 쉽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누렇게 바래가는 잔디란 놈이 안타까워 수고스럽지만 하나씩 잡초를 골라뽑는 마음 -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많은 실수와 오만, 아집속에 시들시들 묻혀있는 작은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아껴주시는 마음 - 난 그만 할 말을 잃고 만다. 올 한해도 더 작아지고 더 감사하며 내 마음의 발을 일궈나갈 수 있길 기도한다.

성 디에고 형제회

월례회:
매달 4 번째 주일
오후 2 시 30 분
St. Columba 성당
3327 Glencolum Dr
San Diego, CA 92111

전화:
(858) 484-1943

E-MAIL:
oh_younghoon
@yahoo.com

‘작은꽃’에 관한 문의:

전화:
(858) 618-1164

E-MAIL:
kwon_youngghwan
@yahoo.com

성경모임 - 레위기편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스스로 거룩하게 행동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12:44) 여러번 반복되어 나오는 이 말씀은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지켜야 하는 각종 규정과 율법, 제사와 정결례에 관한 규정 및 사제와 레위인의 임무, 성결법전등을 써놓았기 때문에 읽기에 다소 힘들고 재미가 없기도 하지만, 이 책의 쓰여진 목적을 생각하며 읽으면 도움이 된다. 특히 레위기 19 장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여러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웃사랑의 근원이 되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아껴라"



즐거운 성경 공부?

(19:18)는 말씀이 있다. 레위기를 읽고 그 옛날과는 다른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이 율법의 근본을 잊지않고 하느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노력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이 사베리아 자매가 정리해 주셨습니다.

12 월 월례회

지난 월례회가 성탄절에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간략하게 월례회를 마치고 지난 달 과제로 공부해온 마르코 복음을 주제로 일곱 팀으로 나뉘어 성극을 각본, 연출하여 발표하였고, 각자 준비해 온 선물 교환하는 시간에는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려는 지극히 형제적인 모습(?)도 보이면서 아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축하하며 즐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설피지만 진지하게

From Russia with Love 2006

매 해 잊지 않고 저희 형제들을 찾아 주시는 러시아 연해주 그리스도 탄생 성당의 작은 형제회 김 용철 도미니코 신부님께서 새해 첫 손님으로 지난 1 월 5 일 방문하셨습니다. 현지 본당이 자리가 잡혀가면서 좀더 현지 사회에 참여하려는 노력으로 시작된 행려자 복지 시설 사업의 진행 상황과 어려움들을 형제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3 개월마다 갱신해야 되는 비자 사정으로 선교사로서 현지에서의 현존에 제일 큰 어려움을 느끼지만, 멀리있는 형제들의 기도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큰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현지에서 하고자 하는 대부분 계획들이 잘 풀려가지 않을 때도 많지만, 변화되어 가는 모습에서 희망을 찾는다고 하십니다.



무용담 2006

이달의 작은 사람



이달의 작은 사람은 남편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 가난한 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기 옥순 루피나 자매를 소개합니다. 성녀 루피나(축일 7 월 19 일)가 본명 성인이신 자매님은 바오로 형제님과 1969 년에 결혼하셔서 1 녀 1 남을 두고 계십니다. 천주교 집안 출신의 '멋진' 바오로 형제님의 꼭 천주교 신자여야 된다는 강경한 태도에 교제를 시작하면서 교리를 받고 영세를 받으셨습니다. 1987 년 친척의 권유로 브라질로 이민하여 잘 정착하였으나, 너무 번창해진 사업 때문에 현지인들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 1997 년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도 바쁜 한국 생활에 마음을 붙이지 못 하던 중, 고향처럼 느끼는 브라질과 자연 조건이 비슷한 San Diego 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성당 구역모임에서 프란치스코를 만남으로 저희 형제회와 인연을 맺어 2004 년 6 월 입회하신 자매님은 지원자 양성을 받으실 당시, 한인 공동체가 잠시 폐쇄되어 어려운 상황일 때 형제들과의 만남이 참 좋으셨다고 하십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난'에 마음이 제일 끌리신다면서 풍족한 곳에서 보다는 모자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신다는 자매님은 매달 손수 준비하신 음식을 가지고 무숙자들을 찾으십니다.